



‘거물급’ 속속 광주 출마...선거 구도 ‘재편’

총선 D-29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로 일컬어지는 광주의 22대 총선 선거 구도가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새로운 선거 구도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낙연-송영길’ 같은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속속 광주 선거구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어-야’ 가 아니라 ‘야-야’ 대결 구도로 전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기사 2·3·4면

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육종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출마 선거구로 광주 서구갑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대표는 앞서 지난 7일 지인에게 보낸 친필 서한을 통해 “아권 심장부인 광주 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으로 고향인 목포 중 한 지역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어 고심 끝에 광주 서구갑을 최종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갑은 고향(고흥) 후배이자 이른바 ‘운동권’ 후배인 송갑석 의원이 있는 곳으로 현재 송 의원은 민주당 ‘현역 하위 20%’에 들어 정치신인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힘든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원료된 광주의 7곳 선거구의 경우 ▲동남갑 정진욱 당대표 정부 특보 ▲동남을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북구갑 정준호 변호사 ▲북구를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 ▲서구를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 ▲광산갑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 ▲광산을 민형배 의원 등 ‘진명계’ 행보를 보여 온 후보들이 모조리 승리했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광주 정치권이 대규모 현역 의원 물갈이와 동시에 진명계 중심으로 완전히 변모할

Today
“공무수행” vs “개구멍으로 도망” 4면
공보의 수도권 차출...농어촌은? 6면
KIA 새용병 코로나, 40인원 백투 16면



투표 참여 캠페인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30일 앞둔 11일 오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 광장에 사전 투표일을 등 대형 홍보물을 설치한 뒤 투표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이낙연 ‘광산을’ 이어 송영길 ‘서구갑’ 출마 예고 박시중·권은희,李 측면 지원 가능성 ‘反明’ 결집 민심이반 속 ‘민주 공천=당선’ 등식 깨질지 주목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낙연-송영길’의 등장으로 지역 출신 정치 거물과 중량감에서 밀리는 ‘진명계’ 후보와 본선 대결이 이뤄진다면 기존의 민주당 ‘공천=당선’이란 등식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낙연-송영길’은 똑같이 민주당 대표를 지낸 경력이 있는 데다, 두 사람 모두 5선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이낙연-전남지사, 송영길-인천시장)을 역임해 ‘거물급’으로 분류해도 손색이 없다.

‘이낙연-송영길’의 광주 출마는 또한 최근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진명(진이재명)회제’, ‘비명(비이재명)회사’ 논란이 자초한 ‘뒤통’의

민심 이반을 배경으로 지역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는 점에서 심불리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광주 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광주 광산은 무엇보다 이 대표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박시중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최근까지도 출마 준비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측면 지원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박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광주 광산을 경선에서 민형배 후

보를 눌렀지만 우여곡절 끝에 경선에서 민 의원에 ‘뒤집기’를 당해 결국 고배를 마신 ‘약연’이었다.

더욱이 지난 1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권은희 전 의원에 “이 공동대표의 광주 광산을 출마 선언에 따라 자신은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며 “지난 설에 이낙연 대표와 통화를 했었고 광주 출마를 고민하시기에 출마하셔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었다”고 이 대표 지원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광산을 출마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윤석열 정권을 교체해야 하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며 “방탄 전문 정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답습한 개발정당, 방탄정당으로 전락했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나라 민주 세력을 배반하고 광주 세력을 배반했다”고 직격했다. /김진수 기자

광주매일신문 총선 특별취재반 가동

광주매일신문은 제22대 총선을 30일 앞둔 3월11일부터 특별취재반을 구성, 투표일인 오는 4월10일까지 가동합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현장 보도와 함께 다양한 기획 기사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총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감시자로서 기본 책무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특별취재반 명단

▲취재반장=김재정 정치부장

▲본사=김애리·박선강·김다이·양시원·안재영·주성학·장은정·박현진 기자(이상 편집국), 박범순·김종식·박상진 기자(이상 광주매일TV본부)

▲지역=정해선·김문태·양훈·정기·김진선·이옥근·정종환·양홍렬·정승균·임종길·최봉환·임병인·이병철·노형록·정영록·박필용·나동호·김상호·김연수·김동규·윤보현·박세권 기자

“민생토론회 광주·전남 공동 개최시 불참”

姜시장 “형평성 안맞아” 광주 단독 개최 요구

전남도 “광주시 입장 관계없이 계획대로 준비”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광주·전남에서 공동 개최할 경우 불참하겠다”며 광주 단독 개최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2면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13일 이 자리(기자실)에서 호남 민생도 대통령께서 살펴 달라고 광주에서 민생토론회 개최를 요청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그 사이 오늘 강원도의 민생토론회가 열렸고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등만 남았는데 실무 추진 상황을 종합해 들어보니 광주 민생토론회를 전남과 공동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2개 지역 공동 개최 형식으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다”며 “이미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을 뿐 아니라 광주·전남만 공동 개최한다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차등도 맞지 않고, 광주시민이 원하지 않는 방식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의 선거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민생문제가 널리

제11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제11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요강

- 지원자격** 기업경영진 및 관리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등
- 모집인원** 00명
- 교육기간** 2024년 3월 26일(화) ~ 2024년 12월 종강(연 16회)
-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오후(7시~8시30분, 6시부터 식사)
- 강의장소**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 전형방법**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강료 : 380만원(부가세 포함)
 - 입금계좌 : 광주은행 (016-107-391900 : (주)광주메스컴)
 - 접수마감일 : 2024년 3월 15일(금)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4)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 주요강사진 (예정)

 박수중 소장 리얼경제연구소	 김계운 교수 전남대의과대학	 문달주 교수 ASSIS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재희 원장 민족문화원장 연구원	 오정애 국악인
 이승재 영화평론가	 이중선 대표 (해)이미지디자인컨설팅	 이창용 미술사	 임진모 음악평론가	 최윤희 대표 2M커뮤니케이션